

## 每日新聞 기사 프린트

[창닫기](#)

### 막스플랑크 포스텍研 '아토초 펄스' 생성 성공

막스플랑크 포스텍研 '아토초 펄스' 생성 성공

막스플랑크 한국포스텍연구소(소장 김동연 교수)가 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아토초 펄스'(섬광)를 생성하는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아토초(Atto second)는 10의 18제곱 분의 1초이고 전자가 원자핵을 한바퀴 도는 시간이다.

연구소는 아토초 시간대에서 섬광을 발생시키는데 성공했다. 한국이 극고속 과학 분야에서 최첨단 그룹에 진입한 것이다.

연구소는 아토초 시간대의 전자 움직임을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조작·제어하는 연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김 소장은 "이 연구를 실생활에 응용할 경우 신물질·소자 개발, 화학반응 연구 등의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아토초 과학을 연구 중이다.

김 소장은 인류의 과학 5대 과제 중 '전자 수준에서의 물질조작', '비평형 상태의 물질 성질 기술'이라는 2대 과제에 도전하고 있다.

경북도 박성수 과학기술과장은 "아토초 펄스 응용에 성공할 경우 아토초 과학의 창시자인 독일의 막스플랑크연구소 크라우츠 교수와 김동연 교수가 공동으로 노벨상을 받을 것이라는게 과학계의 중론"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일신문 공식트위터 @dgtwt / 온라인 기사 문의 [maeil01@msnet.co.kr](mailto:maeil01@msnet.co.kr)

기사 작성일 : 2011년 12월 19일

Copyright © 1995-, 매일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Contact [imaeil@imaeil.com](mailto:imaeil@imaeil.com) for more information